

시황저격



이재원 Market Analyst
jaewon2.lee@yuantakorea.com

오천피 복귀에도 코스닥을 다시 봐야할 이유

개인투자자 이탈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만든 수급 빈집

KOSPI와 KOSDAQ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각각 +34.4%, -28.7%로 극단적인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KOSPI는 신고가라도 경신한 후 차익실현 매물 출회가 이뤄지고 있으나 KOSDAQ은 KOSPI가 오를때도 떨어지고, 떨어질 때도 함께 떨어지고 있습니다. KOSDAQ 부진의 출발점은 핵심 순매수 주체였던 개인투자자의 이탈입니다. 연초 이후 개인은 KOSPI를 114조원 순매수한 반면 KOSDAQ에서는 9.8조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메모리 가격·수출·이익 개선이 확인되는 반도체 대형주가 비교우위를 지닌 가운데, 5월 27일 출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개인투자자의 고배타 수요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이동시켰습니다. 순매수 주체와 거래대금이 동시에 사라진 KOSDAQ은 60일선과 120일선을 연이어 이탈했고,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 변화 이상으로 낙폭이 확대되는 수급 빈집에 놓였습니다.

이익 격차는 존재하지만 주가는 이익보다 더 많이 하락

KOSDAQ 약세를 모두 수급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KOSPI는 반도체 가격과 수출 증가가 이익 추정치 상향으로 연결된 반면, KOSDAQ 시가총액 상위권의 바이오와 2차전지는 기술이전·임상 관련 불확실성과 자금조달 부담으로 부진했습니다. 다만 반복된 약재로 기대 수준과 위험 프리미엄은 이미 크게 조정됐고, 최근 급락 과정에서 KOSDAQ 이익 추정치가 주가만큼 하향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반도체 이익의 절대 수준은 견조하더라도 작년 9월부터 시작된 높은 기저 효과로 수출과 이익 증가율의 추가 가속은 둔화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AI 투자 규모보다 투자 회수와 현금흐름을 확인하기 시작한 만큼, 대형주 이익 우위가 유지되더라도 호실적에 대한 주가 반응이 약해지고 의구심과 증명의 과정이 필요하다면 중소형 성장주로 상대수익률이 확산될 여지가 있습니다.

레버리지 규제와 정책 모멘텀, 낙폭 과대 정상화의 촉매

7월 31일 시행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규제의 핵심은 현금 3천만원이라는 진입장벽보다 매도대금이 T+2일해야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매수대금은 즉시 차감되는 반면 매도자금의 재사용은 이틀간 제한되면서 반복매매와 상품 간 갈아타기의 회전율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규제로 감소한 자금이 모두 KOSDAQ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형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의 자금 효율 및 접근성이 낮아지면 중소형 성장주 투자의 상대적 기회비용도 하락합니다. 여기에 연기금 벤치마크의 KOSDAQ 반영, 국민성장펀드 내 KOSDAQ 펀드 신설, BDC 시행과 특히 9월 출시될 KOSDAQ 프리미엄 지수 등 정책도 실제 집행 단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추세적인 KOSDAQ 붐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급 풀림 완화와 밸류에이션 매력 회복만 더해져도 120일선 수준을 향한 낙폭 과대 정상화는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낙폭과대, EPS 상향, 정책 수급의 세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우량 KOSDAQ 성장주 비중을 확대하기 좋은 타이밍이라는 판단입니다.

개인투자자 이탈으로 시작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끝난 수급 빈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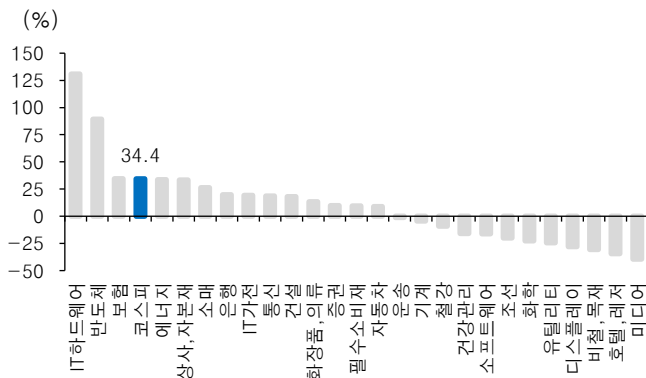
KOSPI 급락에 시장의 관심이 쏠려 있으나 KOSPI가 오를 때 못올랐던 KOSDAQ의 수익률은 더욱 부진하다. 7월 29일 기준 KOSPI, KOSDAQ의 YTD 수익률은 각각 +34.4%, -28.7%다. KOSDAQ의 부진의 출발점은 수급에서부터 출발한다. 그간 핵심 순매수 주체로 자리잡던 개인 투자자의 이탈이다. 연초 이후 개인투자자는 KOSPI를 누적 114조원 순매수했으나 KOSDAQ은 약 9.8조원 순매도했다. 기관은 장기적으로 KOSDAQ의 구조적 매수 주체가 아니었고, 외국인 역시 지수 방향성에 대한 일관된 베팅이 제한적이었다. 장기간 KOSDAQ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 온 개인이 이탈하면서 매도 충격을 흡수할 완충 장치가 약해졌다.

자금 이동의 이유는 합리적이었다. 메모리 가격과 수출, 영업이익이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KOSPI가 불확실한 성장 기대에 의존하는 KOSDAQ 중소형주 대비 우월한 선택지였다. 패시브 ETF 리밸런싱 역시 대형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수급 쏠림이 심화, 개인의 고베타 수요까지 KOSDAQ에서 반도체 대형주로 재배분됐다.

5월 27일 출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낮은 명목가격으로 두 배의 일간 익스포저를 제공했다. 기존에는 높은 변동성을 추구하는 개인 자금이 바이오, 2차 전지, 로봇 등 고 PER KOSDAQ 성장주로 유입됐지만, 출시 이후에는 실적 가시성이 더 높은 반도체 대형주에서도 동일한 고베타 수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 KOSDAQ은 대형주 장세에서도 25년 4월 트럼프 관세사태를 제외하곤 경기선인 120일선을 항상 지켰으나, 단일종목 레버리지ETF 상품 출시 이후 60일선과 120일선을 연이어 하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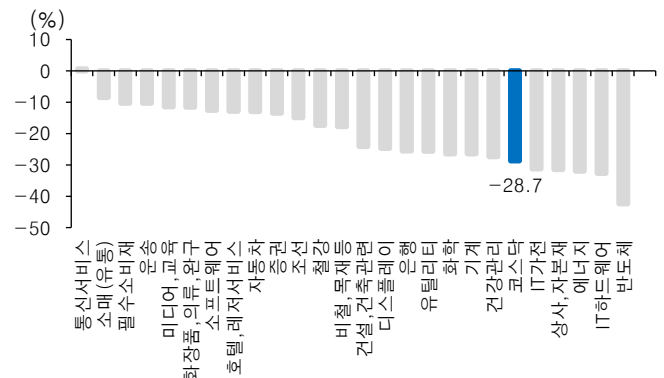
개별종목 수급에서도 개인은 업종 레버리지 ETF를 순매도하고(이 ETF조차 대형주 중심으로 리밸런싱 지속되며 쏠림 현상을 부추겼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순매수했다. 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 쏠림 현상과 양 종목 시가총액 비중 확대에 따른 변동성 확대 심화를 야기했다. KOSDAQ 개별 종목은 물론이고 그간 ‘반도체 ETF’라는 명목 하에 바스켓 매수 효과를 지녔던 KOSDAQ 반도체 소부장도 자금 유출을 피할 수 없었다.

2026년 KOSPI 연초 이후 업종별 수익률



자료 예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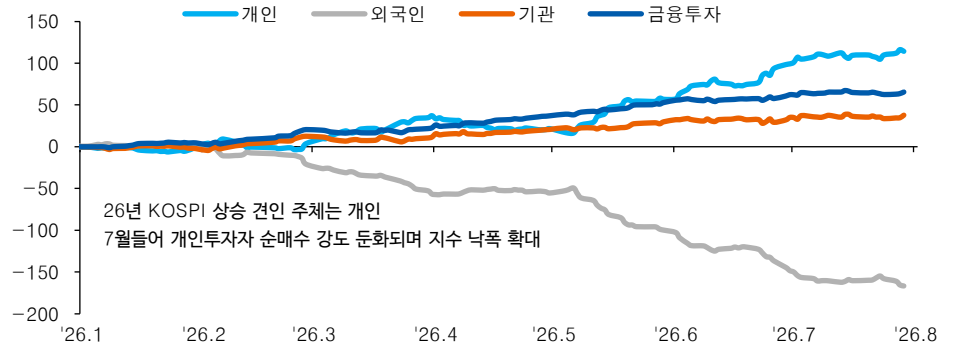
2026년 KOSDAQ 연초 이후 업종별 수익률



자료 예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투자자별 26년 순매수 추이 : KOSPI 상승 견인 주체는 개인과 금융투자(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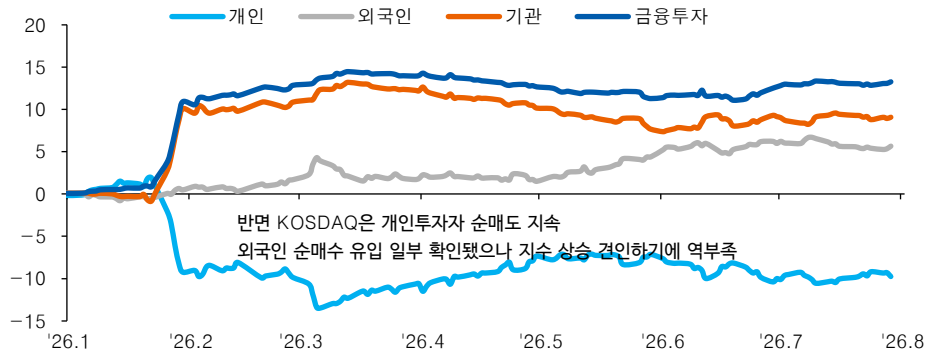
(조원)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투자자별 26년 순매수 추이 : KOSDAQ 하락은 개인투자자의 투매에서 비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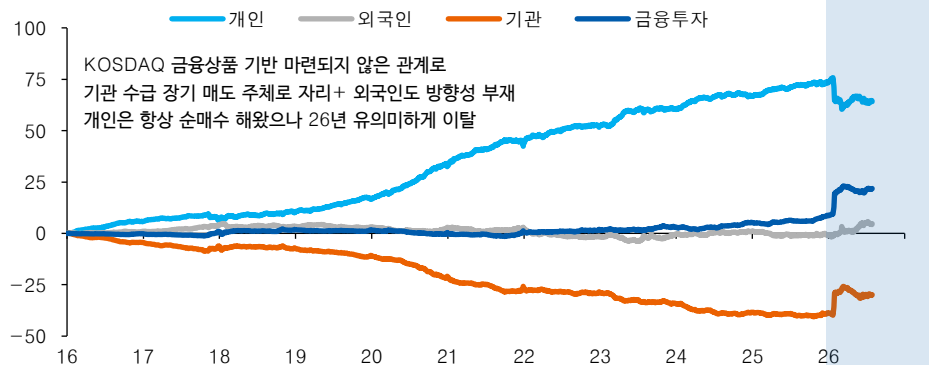
(조원)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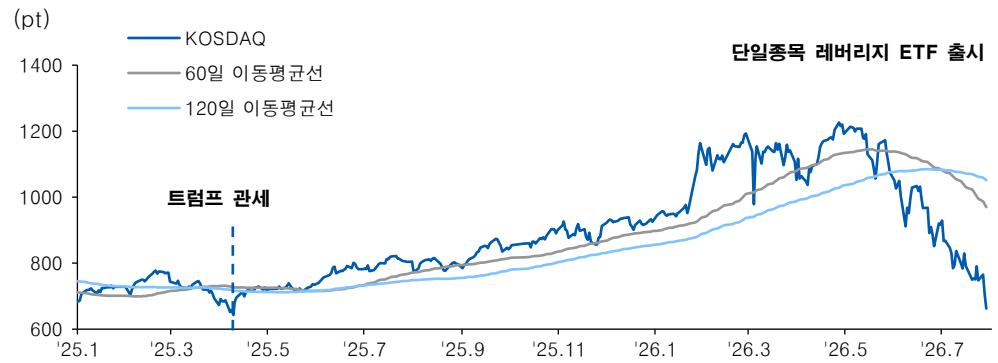
KOSDAQ 장기 순매수 추이 : 비가 오나 눈이 오나 KOSDAQ 사모으던 개인의 이탈

(조원)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트럼프 관세 정도 급락 제외하곤 지켜왔던 KOSDAQ 120 일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붕괴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 상·하위 10개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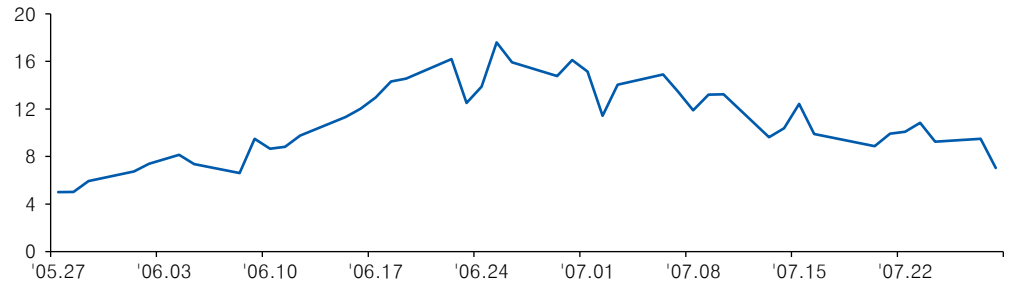
구분	종목명	누적보유증가액(조원)
순매수 상위 TOP10	SK 하이닉스	35.9
	삼성전자	30.7
	KODEX SK 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5.5
	SK 스캐어	3.8
	TIGER SK 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3.6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3.2
	현대차	3.1
	LG 전자	2.4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	2.2
순매도 상위 TOP10	TIGER 반도체 TOP10	-0.4
	KODEX 200선물인버스2X	-0.5
	S-Oil	-0.5
	삼성바이오로직스	-0.5
	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0.5
	대한항공	-0.5
	한국항공우주	-0.5
	셀트리온	-0.7
	TIGER 반도체 TOP10레버리지	-1.1
	KODEX 반도체레버리지	-1.2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관련 16개 상품의 AUM은 출시일 5조원에서 6월 25일 한때 17.6조원까지 급증했다. KOSPI 전체 거래대금의 40% 수준이 레버리지/인버스 ETF 거래 대금이었고, 거래대금이 상품 시가총액을 상회하는 구조는 신규 자금 유입뿐 아니라 동일 자금의 높은 회전율이 시장 변동성 확대 및 KOSDAQ 수급 이탈의 핵심 동력이었음을 보여준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 AUM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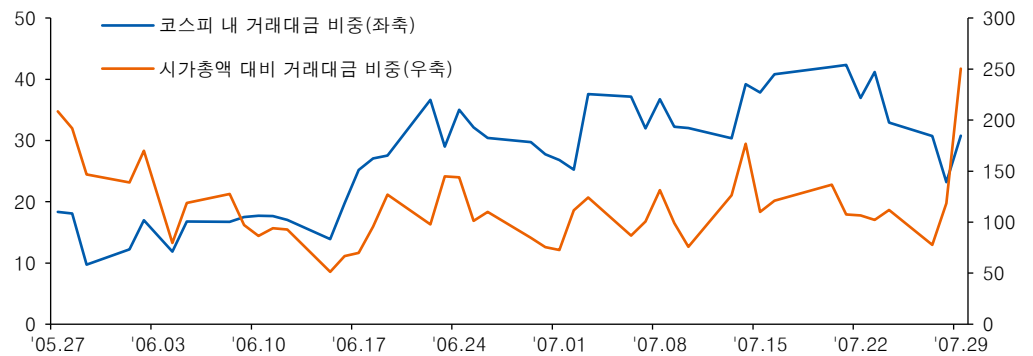
(조원)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거래대금 비중은 KOSPI 전체의 40%에 육박, 시총 대비 거래대금 비중 100% 상회, 회전율도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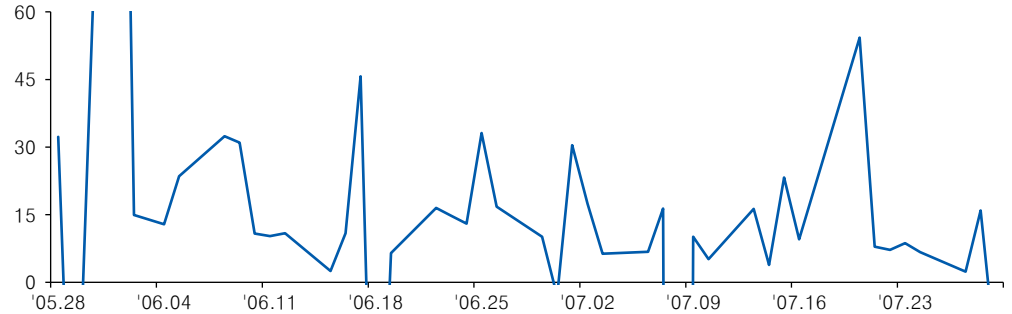
(%)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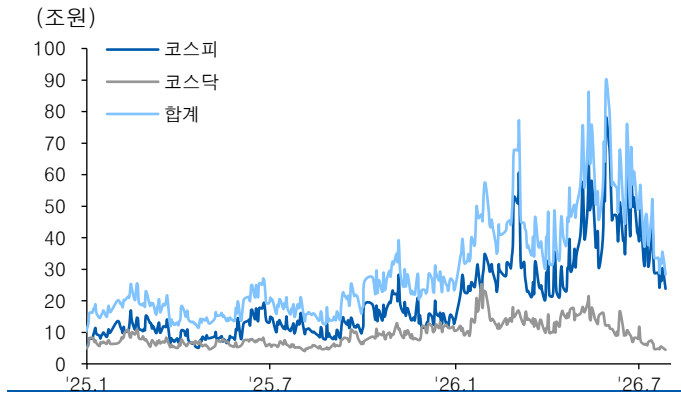
개인투자자 KOSPI 전체 순매수대금 중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순매수 대금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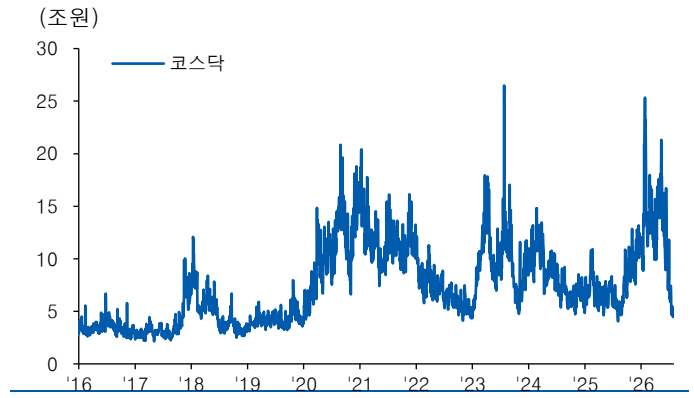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거래대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지속 감소



자료 LSE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거래대금 추이, 수급 빈집에 밀려버린 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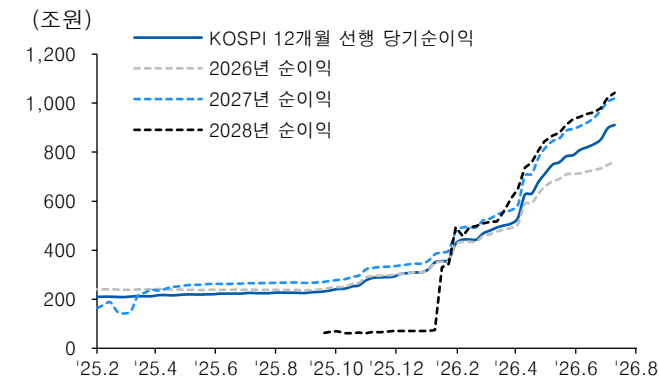
자료 LSE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이익 격차는 존재했다: 바이오와 2차전지 시총 상위주의 부진

KOSDAQ의 약세를 모두 수급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KOSPI와 KOSDAQ의 이익 가시성 차이는 분명했다. 2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반도체 강세 국면에서 중소형주 수익률 부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가피했다. 첫째, 앞서 언급한 수급 쏠림 현상은 심화됐다. 둘째, 이익모멘텀도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이동했으며 이에 따라 셋째, 패시브 강세 및 액티브 약세장 전개되며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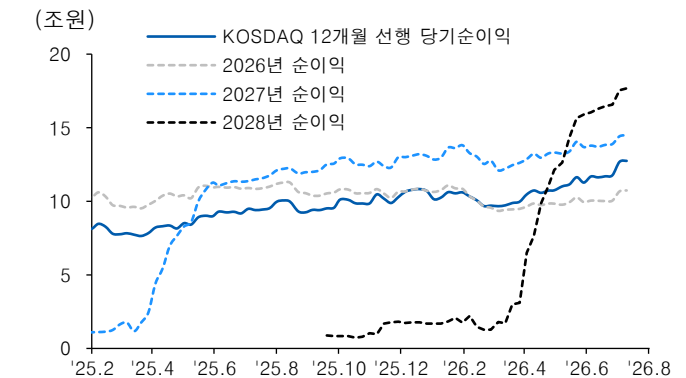
이 상황에서 KOSPI는 반도체 가격과 수출 증가가 이익 추정치 상향으로 연결된 반면 KOSDAQ는 시가총액 상위권에 포진된 바이오와 2차전지가 개별 악재성 이벤트와 유상증자 등 자금조달 부담에 시달리며 악화된 수급을 더 악화시켰다.

KOSPI 이익추정치 추이, KOSDAQ 대비 증익 규모 및 기울기 압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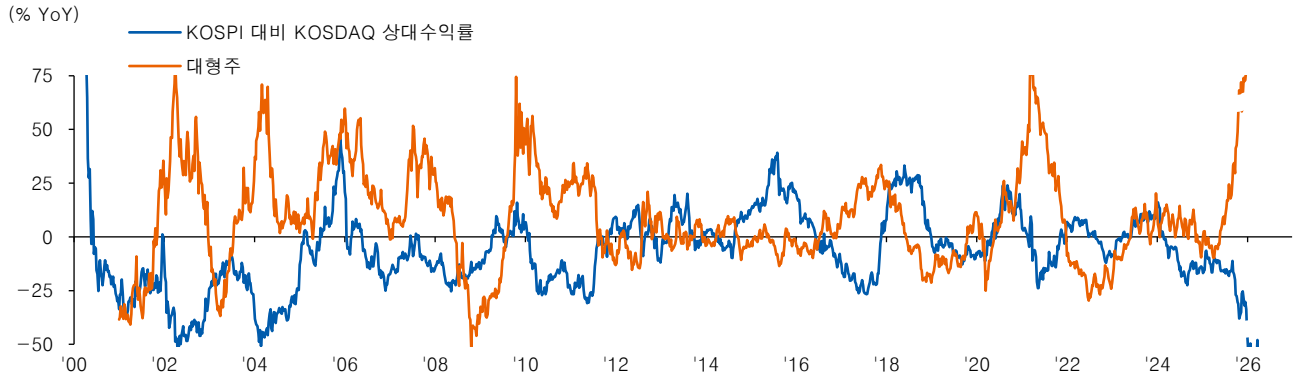
자료 LSE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이익추정치 추이, 감익된 적은 없으나 KOSPI 대비 비교우위 전무



자료 LSE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대형주 강세장에서 상대적 약세였던 KOSDAQ, 과거 어떤 때 보다 강한 대형주 쏠림 강세장 전개에 지수 약세 불가피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약세장 투심 더 악화시킨 개별종목 이슈 : KOSDAQ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주가 급락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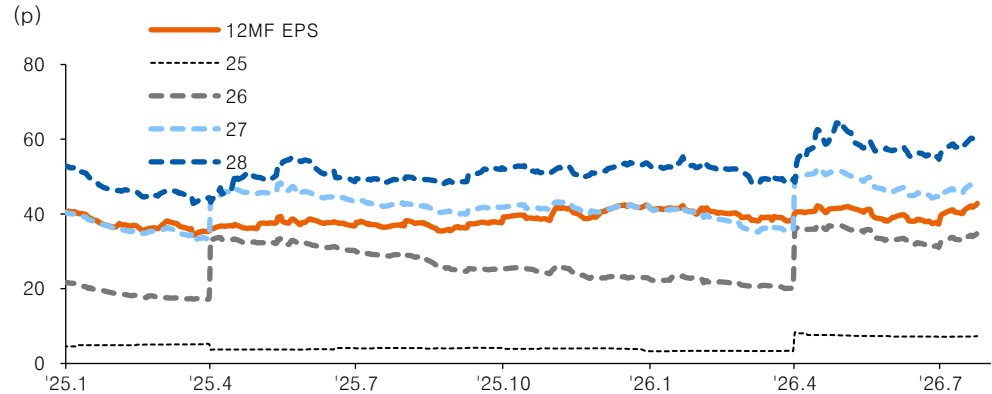
종목	시장에 반영된 부담
알테오젠	1월 기술수출 계약 규모와 경제성에 대한 시장 기대 미달로 하루 22%대 급락. 계약 자체보다 높아진 눈높이가 주가 변동성 확대
팜트론	7월 글로벌 제약사 공동연구 대상에 대한 해석 논란으로 장중 하한가. 회사는 복수 물질 대상 연구가 정상 진행 중이라고 해명.
코오롱티슈진	TG-C 임상 결과에서 시장이 기대한 구조적 개선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해석이 확산되며 급락. 후속 연구 결과가 추가 확인 변수
에코프로비엠	6월 말 약 1.2조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으로 희석과 자금조달 부담 부각. 이후 금융감독원 정정요구로 일정 불확실성 확대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바이오텍의 임상과 기술이전, 2차전지의 수요 회복은 여전히 개별 기업별로 불확실성이 크다. 최악이 모두 반영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위험 프리미엄은 이미 크게 확대됐다. 따라서 최근 개별종목 급락만으로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완전히 소멸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다만 반복된 약재와 하한가로 기대 수준이 이미 크게 낮아졌고, 작은 실망에도 급락하던 구간에서 약재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반응할 수 있는 가격대로 이동했다.

중요한 점은 KOSDAQ 지수 급락 과정에서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낙폭과대 구간에서 이익추정치 상향이 지속되는 종목이 늘어날 경우, 지수 전반의 추세적 강세가 아니더라도 실적주 중심의 바텀 피싱은 최소한 정당화될 수 있다.

KOSDAQ 어닝 리비전 추이 : 하향 조정된 바 없이 주가만 급락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대형주가 나빠져야 코스닥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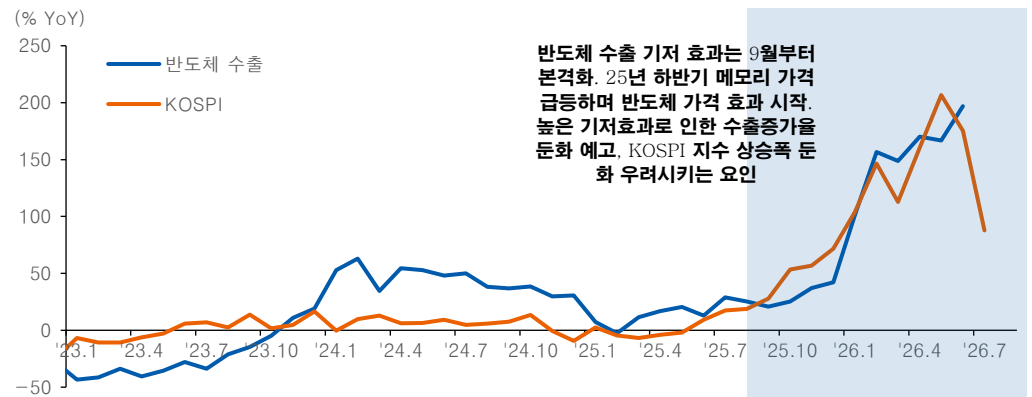
반도체 공급 부족과 메모리 가격 상승, 서버와 AI 인프라 수요는 여전히 KOSPI 이익을 지지한다. 반도체 사이클의 종료와 그로 인한 KOSDAQ의 반사 수혜가 해당 보고서의 주제는 아니다. 대형주 이익의 절대 수준이 좋더라도 이익 증가율의 가속이 둔화되고, 시장이 이미 알고 있는 호재에 주가가 덜 반응하기 시작하면 상대수익률 확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알파벳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24%, 클라우드 매출은 82% 증가했다. 회사는 수요가 공급을 웃돈다고 설명하면서 연간 CapEx 가이드를 기존 1,800~1,900억달러에서 1,950~2,050억달러로 상향했다. 동시에 2분기 CapEx는 449억달러, 잉여현금흐름은 -59억달러를 기록했고, 회사도 인프라 투자로 잉여현금흐름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AI 수요 둔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수요가 강하다는 경영진의 설명과 투자 회수율을 확인하려는 시장의 질문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뜻이다. 메모리도 동일하다.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지속되더라도 투자자는 “이 이익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가”와 “AI 인프라 투자가 최종 매출과 현금흐름으로 언제 연결되는가”를 묻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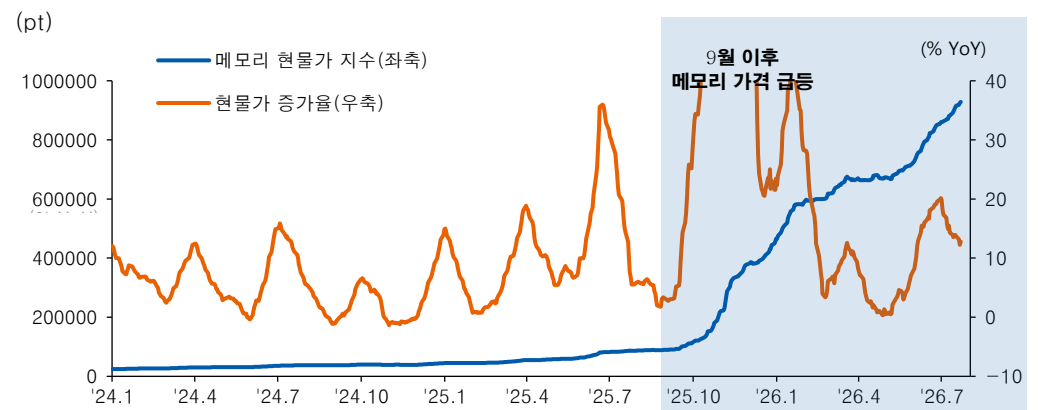
이런 의구심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높은 기저는 실적 악화가 아니라 상대수익률 변화의 계기다. 반도체 현물가격과 수출 증가율이 본격적으로 가속한 시점은 2025년 하반기였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기저가 높아질수록 자연스럽게 둔화된다. 이는 수출액 감소나 사이클 종료라 아니라 변화율의 정상화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절대 수준보다 증가율의 방향에 민감하기 때문에 대형주 랠리의 추가 상승 탄력을 낮출 수 있다. KOSDAQ의 기회는 KOSPI 이익이 무너지는 데서 발생하지 않는다. 대형주 이익 우위가 유지되더라도 주가의 한계 반응이 약해지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높아졌던 중소형 성장주 투자의 기회비용이 정상화되면 KOSDAQ으로의 순환매가 가능해진다.

반도체 수출과 KOSPI 추이



자료 LSE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메모리 가격의 높은 기저효과는 9월부터 본격화



자료 LSE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7월 31일 레버리지 규제와 하반기 정책이 반전의 촉매

7월 31일부터 국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을 신규 또는 추가 매수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현금 3천만원을 보유해야 한다.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거래 경험에 따른 예탁금 완화도 제한된다.

더 중요한 변화는 현금 인정 시점이다. 증권을 매도해도 매도대금은 실제 결제가 완료되는 T+2 일해야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된다. 반면 단일종목 상품을 매수하면 현금은 즉시 예탁금에서 차감되고, 매도대금담보대출도 예탁금에서 제외된다. 현금 3천만원을 모두 활용한 투자자는 당일 매도 후 이틀간 같은 자금을 재사용하기 어렵다.

규제로 줄어든 자금이 모두 KOSDAQ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현금, 지수형 ETF, 해외주식 또는 본주 현물로 이동할 수 있다. KOSDAQ에 우호적인 핵심은 직접 유입액보다 상대적인 기회비용의 변화와 수급 쏠림의 완화다. 실적이 확인되는 대형주에서 두 배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었던 상품의 회전율이 낮아지고, 위험 추구형 고베타 레버리지 투자자의 경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아닌 테마/업종 레버리지 ETF로 수급 이동이 가능해진다. 해당 ETF에 편입되어 있는 중소형주 바스켓 매수 유입 기대감이 커진다. 중소형주가 투자자의 관심과 거래대금을 되찾을 여지도 커질 터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안 및 기대 효과

예상 변화	방향	시장 의미
거래건수 · 회전율	하락	당일 반박매매와 상품 간 갈아타기 제약
평균 주문금액	상승 가능	소액계좌 이탈과 분할매수 불리
상품 AUM	시차를 두고 하락 가능	신규 자금 둔화와 환매가 동반될 경우
본주 순행 수급	완화 가능	AUM 감소 시 리밸런싱 · 헤지 규모 축소
KOSDAQ 기회비용	개선	대형 반도체 고베타 상품의 자금 효율 저하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정부 KOSDAQ 부양 정책도 발표에서 집행의 단계로 넘어서고 있다. 정부 정책의 방향은 단기적인 지수 부양보다 모험자본 조성, 시장 체질 개선, 장기자금 유입, 우량기업 선별의 순서에 가깝다. 금융위원회는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확대와 부실기업 퇴출을 병행하고, KOSDAQ을 프리미엄·스탠다드·관리군으로 구분하는 세그먼트와 승강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프리미엄 세그먼트 내 대표기업 중심 지수와 연계 ETF도 투자기반 확대 수단으로 제시됐다.

2026년부터 주요 연기금 운용평가 기준수익률은 KOSPI 100%에서 KOSPI 95%+KOSDAQ 5%로 조정됐다. 국민성장펀드는 2026년 30조원 이상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BDC와 모험자본 공급 의무 확대도 혁신기업의 성장자금 기반을 보강한다. 정책 효과는 발표가 아니라 실제 펀드 결성, 지수 방법론 확정과 추종상품 설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향후 핵심 정책 이벤트는 프리미엄 세그먼트 및 대표지수다. ETF의 구체화와 KOSDAQ 펀드의 실제 결성 및 집행으로 정책 효과 반영된다면 기술력과 성장성, 유동성을 갖춘 우량 성장주로 개인투자자 자금 재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공급로케도 앞서 언급한 반도체 수출 증가율 둔화 시점인 9월이 해당 지수 출시 예정일이다.

이재명 정부 KOSDAQ 정책 흐름

정책 단계	모험자본 조성	KOSDAQ 체질 개선	자금유입 경로 구축	우량기업 선별&육성
목적	성장자금 공급	혁신기업 진입 부실기업 퇴출	기관 및 정책자금 유입	우량주 재평가
핵심 정책	국민성장펀드, 첨단산업 및 벤처 스케일업 지원	상장폐지 개혁, 기술특례상장 확대	연기금 BM KOSDAQ150 반영, BDC 시행, 국민성장펀드 내 KOSDAQ 펀드 신설	KOSDAQ 프리미엄지수 출시

자료: 금융위원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향후 진행될 주요 KOSDAQ 정책 이벤트 : 9월 KOSDAQ 프리미엄 지수 출시 기대감 반영할 때

예상 시점	정책 이벤트	시장 영향
2026년 7월 말~8월 초	생산적 금융 ISA 세부 세제안	개인 장기자금 유입 기대
2026년 3분기~4분기	KOSDAQ 프리미엄 · 스탠더드 편입 기준 및 지수 세부안	KOSDAQ 우량주 선별 재평가
2026년 10~11월	코너스톤 투자자 · 사전수요예측 시행 가능	신규 상장주 수급 안정
2026년 11월	저 PBR 기업 명단 공개	우량 · 부실기업 차별화 확대
2026년 12월 전후	국민성장펀드 민관합동펀드 자금 공급 개시	신규 · 초기 KOSDAQ 기업 지원
2027년	KOSDAQ 세그먼트 · 승강제 본격 시행	기관지수 · ETF 자금 유입 가능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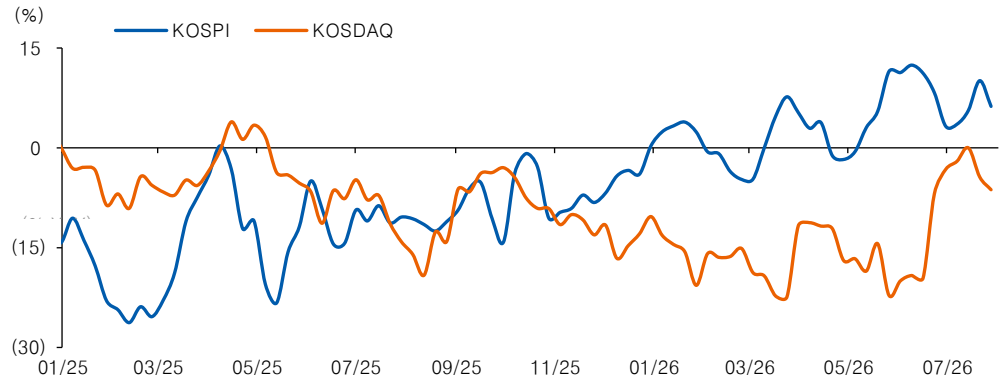
KOSDAQ, 수급과 이익 두가지 측면에서 낙폭 과대 정상화 기대

결론적으로 KOSDAQ의 구조적인 장기 강세장을 전망하는 것은 아니다. KOSDAQ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는 여전히 바이오, 2차전지, 로봇 등 이익 가시성이 낮고 개별종목에 따른 변동성이 큰 업종 및 테마가 다수 포함돼 있다. 반도체 대형주의 이익 우위가 훼손됐다 보기도 어렵다.

다만 과거 KOSDAQ을 부정적으로 판단했던 근거 중 일부가 변하고 있다. 첫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규제로 대형주 수급 쏠림을 강화한 자금 회전 구조가 약화된다. 둘째, 급락 과정에서 이익 추정치가 주가만큼 하향되지 않은 종목들에 낙폭 과대 밸류에이션 매력이 발생했다. 셋째, 연기금 벤치마크와 프리미엄 지수 출시 등 정책이 발표에서 실제 집행으로 이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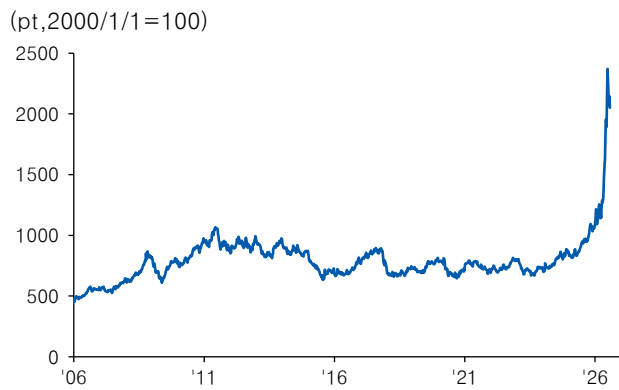
따라서 1차 기대는 신고가나 장기 추세 전환이 아니라 과도하게 확대된 KOSPI 대비 상대수익률 격차와 120일 이동평균선 이격의 정상화다. KOSPI 급락 과정에서 개인이 순매도에 동참한 반면 KOSDAQ 매수로 전환한 모습은 작은 변화지만, 외국인이 대형주 저가매수를 담당할 경우 개인 자금이 다시 중소형주로 이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도체 대형주 중심 전략을 전면 폐기할 단계는 아니나 대형주만 살 수 있었던 5~6월의 압축 장세의 정점은 통과했다는 판단이다. 낙폭과대, EPS 상향, 정책 수급의 세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우량 성장주를 확대할 때다.

KOSPI, KOSDAQ 이익수정비율: KOSPI 여전히 건조, 바닥에서 반등한 KOSDA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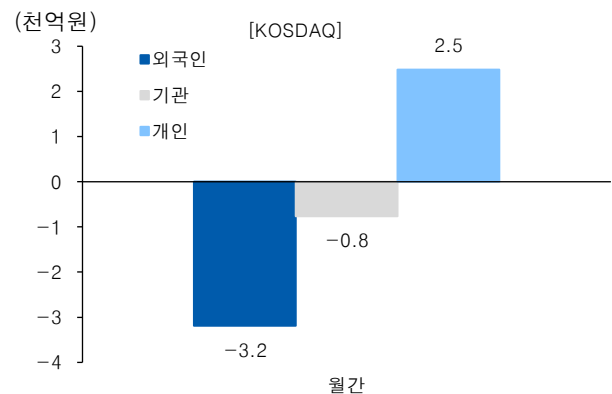
자료 LSE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대비 KOSPI 상대강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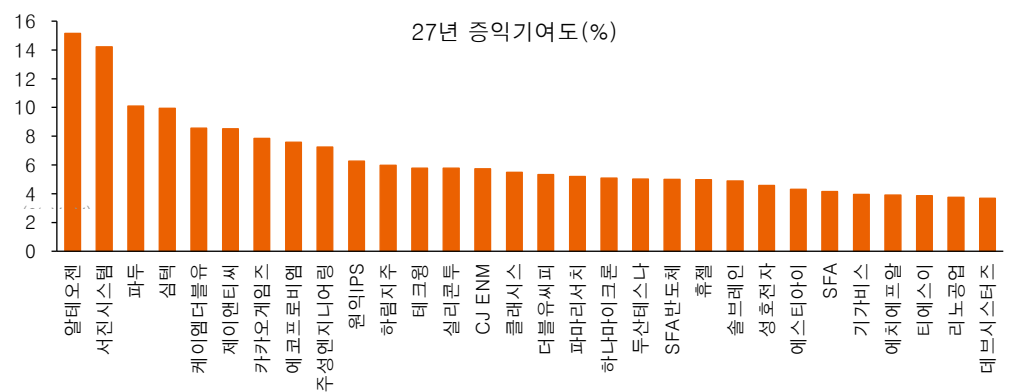
자료 LSE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7월 월간 주체별 KOSDAQ 누적 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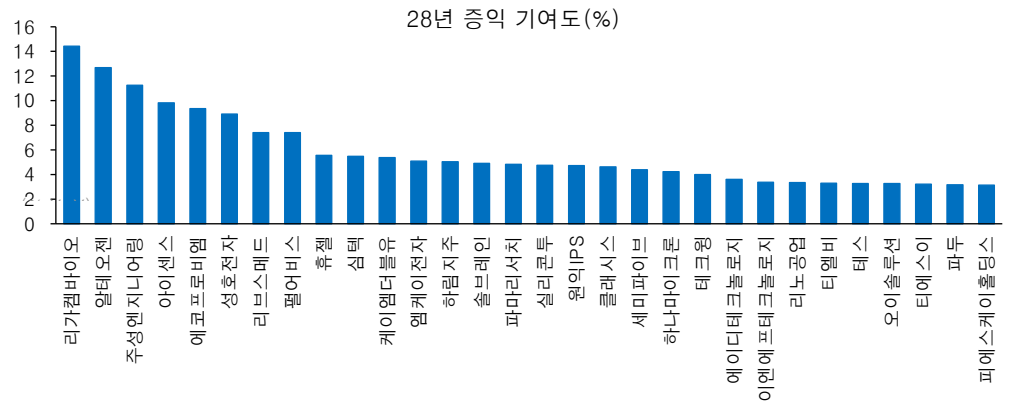
자료 LSE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7년 KOSDAQ 이익기여도 최상위 종목



자료 LSE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028년 KOSDAQ 이익기여도 최상위 종목



자료 LSE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ppendix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재원)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